

1500원대 강달러 여전... “원화, 3분기부터 서서히 오를 것”

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등 인식차 당분간 달러 지지력 유지 가능성 종전 구체화시 1400원대 중반 전망



16일 오후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11.1원)보다 0.5원 오른 1511.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스시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최대 요인이었던 '중동사태'가 종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원화는 달러당 150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11.60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직전일 주간 종가와 비교해 0.5원 올랐다.

◆ 한국시장 떠나는 외국인... 수출기업 달러선호 뚜렷

'중동사태' 종료에도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내리지 않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전 수요가 원화값을 끌어내리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318억3000만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갔다. 기존 최대치인 올해 3월의 297억8000만달러보다 20억 달러 이상 많다. 이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악화 전망보다는 차익 실현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기인했지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수요는 원화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전 수요에 따른 원화의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동사태'의 종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사들이기보다는 팔아치우고 있어서다. 특히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중도 1년 전과 비교해 8%포인트(p) 높은 40%에 달한다.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강달러' 양상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들이 환전을 미루는 것 또한 원화값이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 달러예금 잔액은 총 543억 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달러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다가 만기 때 원화로 돌려받는 상품으로, 달러예금 규모는 기업의 달러 선호와 직결된다.

기업들의 달러 선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는 주요 수출기업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지난 1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과 외환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유예 자금의 적극적인 환전을 요청했다.

◆ '중동사태' 잔불 남아

전문가들은 '중동사태'의 잔불이 남아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달러당 1500원 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양호한 수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원

화가 과도하게 평가절하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종전 기대에 따른 환율 하락 압력에도) 달러의 실수요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인식차도 여전한 만큼, 달러의 지지력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원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는 중동사태 동안 다른 통화와 비교해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면서 "종전이 구체화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사상 최대 수준인 무역수지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직접 요인으로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유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수출 경기가 매우 양호한 것과 비교해 원화는 지나치게 힘을 못쓰고 있고, 하반기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원화 절하 압력을 완화시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i231@metroseoul.co.kr



metro

>> 1면 '개인회생·파산...서 계속

상승장 '포모 심리' 자극 "무리한 투자 경계해야"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데, 급락장에서 손실이 확대되면 계좌 자산이 사실상 사라지는 '강통계좌'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도 가계 재무 건전성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권 연체율은 6.7%로 전 분기 말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의 상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실패 채무까지 더해질 경우 금융권 부실로 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무리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심리가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회생·파산 관련 전문가는 "주식 상승 관련 뉴스가 이어질수록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며 "마이네스통장이나 신용융자 잔액 증가 흐름은 여전히 시장에 포모 심리가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채무 상환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서는 행위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회생 절차를 앞두고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경우 법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더라도 개인의 소득 증가와 현금 흐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계 부채 부담은 줄어 들지 않는다"며 "자산 가격 상승기에 나타나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가 향후 잠재 부실로 전환될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美, 이란 재건기금 조성 검토... 韓 기업 수혜 가능성

3000억 달러 규모 조성안 논의 정부가 아닌 참여기업 투자방식

미국은 대 이란 전쟁이 종식된다는 전제하에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금으로 꾸리는데, 한 외신보도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언급했다.

실제 관련 펀드가 조성될 경우, 이는 결국 백악관의 이란 정부에 대한 전쟁 배

상금 지급이 아니냐는 전 세계의 해석·평가를 낳을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현지시간 15일치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진행된 미-이란 간 종전협상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및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안이 논의됐다. 신문은 미국의 한 고위 관료를 인용했다.

이 신문은 재건기금이 양측 간 양해각서(MOU)의 일부라고 보도했다. 단, M

OU에 적시된 합의가 실제 이행돼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각국 정부가 아닌, 이란 에너지산업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기금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신문에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에 더해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펀드 조성안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 역시 MOU 내용을 전하고,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언제나 든든하게~

노란우산이 함께해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홍보대사 소유미

홍보대사 탁재훈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 중소기업중앙회 심의필 제26-025호(2026.03.06 ~ 2027.03.01) *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